

# 한국 '법인세 부담' OECD 7위

## GDP 대비 비중 4.1% 상위권에 해당 법인세 최고세율은 18위로 낮은 수준

정부가 상반기 중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인 7위로 집계됐다.

27일 기획재정부 및 OECD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수의 비중은 4.1%로 전년인 2004년(3.5%)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은 3.7%였다.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란 한 해 동안 그 나

라에서 창출된 소득(GDP)에서 법인세로 얼마 만큼을 걷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GDP 대비 특정세목의 세수비중은 그 세목의 '압축적 유효세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1985년 1.9%에서 1990년 2.5%, 1995년 2.4%, 2000년 3.3%, 2005년 3.5%, 2005년 4.1%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2005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의 GDP 대비 법인세 수 비중이 11.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6.3%), 룩셈부르크(6.0%), 호주(5.9%), 체코(4.5%), 일본(4.3%)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법인세 부담 수준이 높았다.

스페인(3.9%), 스웨덴(3.8%), 네덜란드(3.8%), 덴마크(3.8%), 캐나다(3.5%), 벨기에(3.5%), 영국(3.4%), 아일랜드(3.4%), 핀란드(3.3%), 미국(3.1%), 포르투갈(3.0%) 등도 GDP 대비 법인세 수 비중이 3%를 넘었다. 슬로바키아(2.8%), 프랑스(2.8%), 스위스(2.6%), 오스트리아(2.3%), 아이슬란드(2.3%), 터키(2.3%), 헝가리(2.1%), 폴란드(2.1%) 등은 비교적 법인세 부담이 작았다.

이처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으로 본 우리나라가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상위권에 속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8위(2006년 기준)를 차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법인세 부담수준 비교 (단위:%)

국가	법인세율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캐나다	21(36.1)	3.5
멕시코	29(29)	-
미국	35(39.3)	3.1
호주	30(30)	5.9
일본	30(39.5)	4.3
한국	25(27.5)	4.1
뉴질랜드	33(33)	6.3
체코	24(24)	4.5
프랑스	34.4(34.4)	2.8
독일	25(38.9)	1.7
이탈리아	33(33)	2.8
룩셈부르크	22(30.4)	6.0
네덜란드	29.6(29.6)	3.8
노르웨이	28(28)	11.8
영국	30(30)	3.4

미국과 스웨덴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3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4.4%), 뉴질랜드·벨기에·이탈리아(33%), 영국·일본·호주·터키(30%), 네덜란드(29.6%), 그리스·멕시코(29%),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28%), 핀란드(26%)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오스트리아·독일·포르투갈 등은 우리나라와 세율이 같았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국가는 체코(24%), 룩셈부르크(22%), 캐나다(21%), 폴란드·슬로바키아(19%), 아이슬란드(18%), 헝가리(16%), 아일랜드(12.5%), 스위스(8.5%) 등 9개국이었다. /연합뉴스

#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길 열리나

## 제도권 금융사 소액 신용대출 부분보증 검토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부분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대출 위험을 덜 수 있고 저신용자는 저금리보다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27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의 기대효과와 보완 방안' 보고서에서 소액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이같은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은행 자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소액 신용대출 규모는 스탠다드차이저은행 1천억원, 은행계 여신전문사 1천200억원 등 2천2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2007년 조사결과,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6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대출만으로는 서민이 고리의 사금융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따라서 "소액서민금융 재단과 신용회복지원기금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부분보증을 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신용위험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금액의 일부에 대해 보증을 해주면 금융회사가 부실위험 때문에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금리를 낮출 유인이 생기게 된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의 소액 신용대출 금리는 연 30~45%이며 은행 자회사들은 연 20~30%대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실시하는 사금융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보증, 대부업체 이용자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로 갈아타는 환승론에 대한 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블랙 펄 삼푸’ 출시 퍼포먼스

(주)아모레 퍼시픽의 헤어 패션브랜드 '미장센' 홍보도우미들이 27일 서울 명동에서 '블랙 펄 삼푸'의 출시를 기념해 블랙펠을 상징하는 검은 우산을 펼쳐 들고 머릿결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밥 7시간·비포장 두부 3일안에 팔아라

## 식약청, 어묵·도시락 등 권장유통기한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묵·두부 등 단기 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한을 제시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최근 입안에 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 유통기한은 각 업체가 실험을 통해 설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 업체들이 설정시험장비와 비용 부담으로 직접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용역연구 결과에 근거해 단기보존식품에 대해 권장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따르는 제품에 대해서는 설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별 업체가 실험을

통해 근거를 제시할 경우 권장유통기한보다 길게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청이 제시한 권장유통기한은 살균하지 않은 어묵제품은 10℃ 이하 냉장 보관 기준으로 8일이며 포장되지 않은 두부의 경우 3일이다. 또 김밥과 도시락의 권장유통기한은 냉장보관할 때 36시간이지만 상온(15~25℃)에서는 각각 7시간과 8시간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밖에 샌드위치와 햄버거는 냉장온도에서 각각 48시간과 72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상온에서는 10시간 이내 소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합뉴스

# “고속도로 주유소가 싸다”

## 휘발유, 서울 강남구보다

## ℓ 당 65~135원씩 저렴

장거리 운전엔 나설 땐 시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

27일 한국고속도로휴게소협회가 최근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 주유소의 ℓ 당 평균가격은

휘발유 1천707원, 경유 1천635원으로 휘발유는 서울 강남구·송파구·영등포구의 평균보다 65~135원 저렴하고 경유는 70~121원씩 싸다.

특히 서울 양재동·송파구·하남시·신갈 등 고속도로 진입전 4개 주유소들의 ℓ 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천782원, 경유 가격은 1천717원인 반면 수도권 지역 고속도로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707원, 경유는 1천635원으로 각각 75원과 82원 저렴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28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2 5 10 18 31 32	3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322,052,643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8,199,836	32
3	5개 숫자 일치 1,012,735	1,523
4	4개 숫자 일치 46,530	66,297
5	3개 숫자 일치 5,000	1,020,328

# 팝콘복권 (제10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주 751576
2	1억	2주 263429
		4주 537152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2주 60629
4	1백만	각조 7230
		각조 24
5	50만	각조 57
		각조 68
6	2천	각조 4
		각조 7
7	1천	각조 6
		각조 7

# 작년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적자'

## 信保 4,300억·철도시설공단 3,200억 등

## 임직원 수는 5년간 연평균 7.7% 늘어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에서 30% 가량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연평균 7.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활동인구 및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정보를 담은 경영정보통합공시시스템(알리오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02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7조4천억원으로 전년(17조1천억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당기순

이익은 각각 5조2천억원과 6조6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6%와 3.7% 증가했지만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12.4% 감소한 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2조5천8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2조480억원), 한국전력공사(1조5천570억원), 자산관리공사(1조2천120억원), 기업은행(1조1천680억원), 한국토지공사(9천690억원) 등도 당기순이익 규모가 컸다.

반면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26개, 기타공공기관 60개 등 전체의 30%

수준인 89개 기관은 지난해 적자(당기순손실)를 기록했다.

기관별 적자규모는 신용보증기금(-4천369억원), 철도시설공단(-3천197억원), 기술보증기금(-3천164억원), 대한석탄공사(-929억원), 주택금융공사(-816억원), 신용보증재단연합회(-285억원), 문화에슬워협회(-282억원), 컨테이너부두공단(-184억원), 전자통신연구원(-141억원), 정보문화진흥원(-124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8.3% 늘었지만 부채는 같은 기간 9.1% 증가해 자산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더 빨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는 25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3.9%(9천771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일철강	생산, 납품관리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9	062-944-8877
지비씨 주식회사	정규직 사원 공개채용(소빙물 운영관리/영업지원/마케팅)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29	062-350-6730
㈜한성MS	롯데캐피탈 사무직 [고정급124만/주5일]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29	062-350-8860
㈜인천상사	정규직 매장관리 및 사무보조, 상담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9	062-524-0101
미래테크	임상직역 피부관리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30	062-385-4194
㈜신승통 세도	판매, 육가공, 물류팀의 신입 및 전문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269-4911
㈜유진하우징	정규직 사무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4/30	062-603-2656
비엠글로벌	백화점 골프웨어(울스) 매장관리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30	062-360-1539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문계약직(프로그래밍개발 C#, .NET)	초대졸/경력1년	2200~2400	04/30	062-530-1158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TM직접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5/01	062-360-5201
프리머스에이치알(주)	[주5일]신한카드 고객만족센터(50명채용)/채권상담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02	062-383-1756
대성애드	각종 광고물제작 및 현수막제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2	062-374-1727
㈜오에이전자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총무 사무관리 경력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3	062-971-4800
유리정산업	납품 영업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3	062-945-478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5월 1900선 간다

## 증권사, 코스피 지수 상승세 전망

## IT·자동차 업종 시장 주도주 역할

주요 증권사들은 증권시장이 5월에도 대체로 4월의 반등세를 이어가며 코스피 1,900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5월에는 정보기술(IT)과 자동차의 상승세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5월 코스피지수 상단 1,900선 제시=증권사들은 5월에도 4월의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지수는 대체로 1,900선 언저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증권사들이 4월 지수를 최고 1,800선 중반까지 제시했던 것에 비해 상향조정된 것이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점차 해결의 길로 나아가갈 것이라는 기대감에다 미국 달러인하로 인한 유동성 강화와 기업실적 호전 전망, 중국의 증시 부양책, 원화 절하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이 호재로 작용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이들은 분석했다.

◆5월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IT·자동차주=증권사들은 주도주로 환율효과와 실적회복, 수급개선 등이 기대되는 정보기술(IT)과 자동차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공공건설 활성화와 은행명영화 이슈로 정부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과 은행업종 등도 5월 시장을 주도할 업종으로 제시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밖에 상대적으로 가격상승률이 낮은 열로우칩이나 중·소형주, 이익모멘텀이 불안하지만 가격매력이 발생한 에너지와 철강 등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고 개별종목으로 한라공조와 삼성중공업, S-Oil, LG화학, 현대제철 등이 유망하다고 소개했다.

현대증권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옛 LG필립스LCD), 현대차 등 IT·자동차주 이외에 LG화학, GS건설, 현대해상 등을 5월 톱픽(최선호주)으로 꼽았으며 한국투자증권은 건설과 증권 등 정책수혜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다. /연합뉴스

# 중소 평균 월급 177만원 대기업의 절반 수준 불과

## 임금 수준 상대적 약화 인력난 부채질

중소기업들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기능직 중심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중소제조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177만6천원으로 대기업(333만2천원)의 5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비율은 1995년 조사에서 64.5%였으나 2000년에는 54.9%로 떨어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공급원이던 전문계(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2000년 29만1천명에서 2006년 16만3천명으로 급감하고 이 기간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51.4%에서 25.9%로 급락한 반면, 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점도 인력 수급 약화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부족인원이 지난해 9월 기준 9만444명에 이르고 특히 기능직은 3만9천505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KIET는 중소기업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중기 근무 전문 기능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제안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위 100대 기업 직원들의 작년 연봉이 3천6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코스닥시장 12월 결산 법인 중 직원급여를 공개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전체 평균 연봉은 3천641만원이었다. 이는 작년 10대그룹 일반직직원 평균 연봉 5천454만원의 72.17% 수준이다. /연합뉴스

# “개인정보 유출 책임지지 않겠다”

## 옥션측 약관변경 ... 공정위 '제동'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빚은 옥션이 개인정보 약관을 변경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약관이 불공정한 조항이어서 무효라며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보도된 옥션의 약관 변경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시에는 사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보다 확실한 판단이 서겠지만 정보유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